‘天地之美’ 재해석…미디어아트로 구현

이이남 작가, 2018러시아 월드컵 기간 모스크바서 개인초대전

전시 주제 ‘평화로 가는 길’ …박연폭포·단발령망금강 선봬

이이남 作 ’4·27 평화, 새로운 시작-단발령망금강’

4·27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판문점 평화의집 연회장에 작품 전시를 해 화제를 모았던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개최지인 모스크바에서 미디어아트 개인초대전을 가져 눈길을 끈다.

이이남 작가는 다음달 14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MARS Media Art Center에서 전시를 연다. 전시 주제는 ‘A Path to Peace’(평화로 가는 길)이다.

지난달 이 작가는 러시아 주립대학 인문학 뮤지엄센터(RSUH Museum Center)에서 ‘꽃과 만물’ 그룹전과 MARS Media Art Center에서 ‘박연폭포’, ‘4·27 평화, 새로운 시작-단발령망금강’ 등의 작품으로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전시 담당자인 Nataliya Kamenetskaya는 “이이남 작가는 한국의 현대미술을 러시아에 알렸다. 그의 작품 덕으로 러시아 사람들에게 미디어아트를 보여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며 “더 많은 작품을 알리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이남 작가와 다시 한번 전시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러시아 측의 요청으로 MARS Media Art Center 개인전이 2개월 더 연장됐으며,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선 겸재 정선이 느꼈던 ‘천지지미’(天地之美·천지의 아름다움)를 시뮬라크르로 재해석해 디지털 속의 가상현실의 공간으로 다시 생생하게 드러낸 ‘박연폭포’, 4·27남북정상회담에서 서로 닿을 수 없는 산과 산을 현대적인 이미지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남과 북이 평화로 소통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인(8폭 병풍 중) ‘4·27 평화, 새로운 시작-단발령망금강’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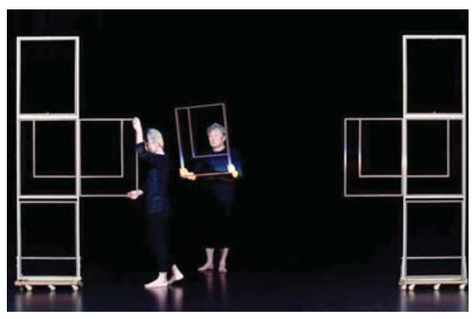
한편, 이 작가는 지난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전시에서 러시아 여러 언론에게 주목을 받으며 성황리에 전시를 마쳤으며,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개막식(모스크바 볼쇼이극장)에서는 세계에 한국적인 미디어아트를 선보여 양국의 상호 우호와 친선을 강화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올해는 창원비엔날레, 부산시립미술관 등 국내 전시 뿐 아니라 상하이와 홍콩, 파리, 상파울루 등 해외전시가 계획돼 있다. /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

---

2016·2018GB 강서경·2016GB 로렌스 아부 함단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발루아즈 예술상 수상


강서경 作 ‘검은아래 색달’ /광주비엔날레 제공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가 올해 아트바젤의 발루아즈 예술상(Baloise Art Prize)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재)광주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강서경(41) 작가와 요르단 작가 로렌스 아부 함단(33·Lawrence Abu Hamdan)이 발루아즈 예술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발루아즈 예술상은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아트바젤’이 현대미술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특정 영역에 출품한 작가 중 두 명을 선정한다. 상금으로 3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3천300만원)이 지급되며, 상금과 함께 아트바젤 측이 작품을 구매해 유럽 주요 미술관에 기증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작가가 발루아즈 상을 받은 것은 2007년 양혜규에 이어 두 번째다.

강서경 작가는 2016광주비엔날레에서 비디오 설치 작품 ‘검은자리 꾀꼬리’와 ‘검은아래 색달’을 4전시실에서 전시했으며, 올해 광주비엔날레에서도 김만석, 김성우, 백종옥 큐레이터가 꾸미는 한국전 섹션에 참여한다.

회화,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작가로 이화여대에서 동양화를, 영국 왕립 미술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이번 아트바젤에서는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환기하는 그랜드마더 타워 시리즈 등을 선보였다.

로렌스 아부 함단은 2016광주비엔날레에서 기술장치의 발전과 오늘날 권력이 맺고 있는 관계를 시각화하는 ‘고무 도포 강철’, ‘마지막 어휘’ 등의 작품을 4전시실에 선보였다. 당시 미디어 아트를 대상으로 2년마다 수여하는 독일의 미술상인 ‘백남준상’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문의 062-608-4224) /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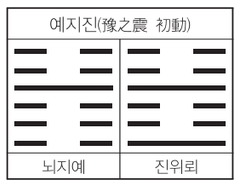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79〉 육십사괘 해설 :16. 뇌지예(雷地豫) 中

“명예흉(초육), 개우석 부종일 정길(육이), 우예 회지유회(육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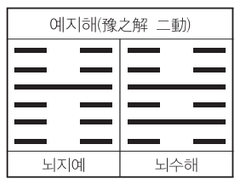
〈鳴豫凶, 介于石 不終日 貞吉, 盱豫 悔遲有悔〉

예괘(豫卦)의 각 효를 간단히 살펴보면 초육은 명예(鳴豫)라 해 음효이니 자신의 근본은 없고 사람을 따라서 모방하고 그 즐거움을 따라가 빠지니 기쁘나 게으르게 돼 흉하며 육이는 유순중정(柔順中正)이니 자신의 위치를 지켜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육삼은 예괘의 주효 아래 있어 음유유순부정(陰柔柔順不正)의 음효로 위를 선망하고 있으니 우예(盱豫)라 했다. 구사는 예괘의 주효로서 이 효로 인하여 오음(五陰)이 즐거움을 얻으니 유예(由豫)라 했고 육오는 군위(君位)에 있으면서 음유(陰柔)이니 예(豫)를 사령할 수 없어 정질(貞疾)이라 했으며 상육은 예의 극(極)에 위치해 예의 환락이 애수(哀愁)로 변하니 예락(豫樂)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명예(冥豫)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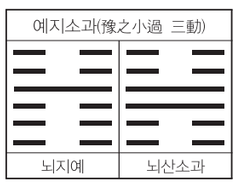


예괘의 초효는 ‘명예 흉’(鳴豫 凶)이다. 즉 ‘즐거움을 새가 우는 것처럼 웃고 떠들면(鳴) 흉하다’는 뜻으로 초효이니 아직은 어리고 성급해 기쁜 일이 도래하는 것을 떠들고 다니니 흉하다. 예괘는 사효 양효(陽爻)를 쳐다보고 다섯 여자가 남자 한 사람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 중 초효만이 응효(應爻)로서 구사와 음양상응(陰陽相應)해 독점하려 하고 즐거워서 혼자 소리 지르는 것이다. 그러면 흉하다는 것이다. 다른 음들도 있는데 나 혼자만 좋아서 기뻐하면 흉하다. 효사의 ‘명예’(鳴豫)는 자신의 즐거움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보고 그것에 빠져서 올바르지 않게 교류하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모방하니 지속되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상전(象傳)에서는 이를 ‘뜻이 다해 흉하니 지궁흉야(志窮凶也)’라 했다. 점해 예괘 초육을 얻으면 실력이 없는 사람이 윗사람의 지위나 친밀함을 이용해 알랑한 재주를 자랑하고 까불고 있는 때이다. 자기의 근본은 없고 구사를 따라서 모방하고 있으나 은인자중해야 하고 변괘가 중뢰진(重雷震)이 돼 놀랄 일이 있으니 이를 경계해야 한다. 자기는 즐거워야 할 일이 없어 다른 사람(九四)의 즐거움을 보고 그것에 빠져서 올바르게 교류하지 못한다. 예상하고 있던 일들이 모두 빗나가니 자중해야 할 때다. 사업·거래·지망 등은 상당히 유망한 듯하나 잘못 판단한 것으로 성사되지 못하니 포기하는 것이 좋고, 이전·전업 등도 외부로부터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나 아직 때는 아니다. 혼담은 겉으로는 좋게 보여도 잘 되지 않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있고 연애한 상대에게 버림받을 수 있으며 잉태에도 어려움이 있다. 기다리는 사람, 가출인, 분실물은 돌아오지 않고 찾기 힘들다. 병은 설사·복통·놀람 등이 있으나 결코 가벼운 증상은 아니다. 날씨는 뇌우가 오고 우중(雨中)이면 맑아지며 겨울이라면 아주 매서운 추위다.

[실점예]로 ‘모인(某人)의 운세 여하’를 점해 ‘예괘(豫卦) 초효동’를 얻고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문점자는 어떤 높은 고관(구사)의 힘을 믿고 여러 사람을 희롱하고 상전 노릇하고 있다. 그러자 문점자는 ‘자기 딸을 고관의 후처(後妻)로 보내 이권을 취하면서 고관의 이름을 사칭해 행세하고 있다’고 이실직고(以實直告)했다.



육이의 효사는 ‘개우석 부종일 정길’(介于石 不終日 貞吉)이다. 즉, ‘절개가 돌처럼 견고하다. 하루가 다 끝난 것이 아니니 내일도 오늘처럼 굳게 지키면 바르고 길하다’는 뜻이다. 육이는 유순중정(柔順中正)의 효이니 예의 때를 만나 일락(逸樂)에 빠지는 일이 없고 견고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어 오늘만 놀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는 등 환락의 기쁨에 빠지지 않는다. 상으로 보면 2,3,4효는 간산(艮山)으로 돌이고 돌처럼 자신을 지키는 상이니 ‘개우석’(介于石)이라 한 것이다. 결국 효사는 ‘돌과 같이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하던 일이나 계속해 나가면 바르고 길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점하여 육이를 얻으면 쓸데없는 참견을 절대 해서는 안되는 때이다. 음효가 음위에 있고 두음 사이에 끼여 있으니 어둠의 극치요 고요함이 지극하다. 하고자 하는 일은 구사까지 삼년(삼월)은 기다려야 한다. 육이는 육오의 지시를 받지만 실권자인 구사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어 돌에 끼여 있다고 했다. 마치 육이는 육오(궁예)와 구사(왕건) 사이에 끼여 있는 부하 최웅의 입장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구사를 위해 좋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거래·이전·전업 등은 옛 것을 지키고 함부로 진출하지 말아야 하고 때를 기다려야 하며 지망은 분수를 넘어선 것이니 통달하지 않는다. 혼인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상대에게 병 등이 있어 좋은 인연이 아니며 잉태는 유산의 우려가 있고 임산(臨産)에는 어렵고 늦어져 순산(順産)은 어렵다. 기다리는 사람, 가출인은 돌아오지 않고 흩어져 버렸고 분실물은 포기해야 한다. 병은 암, 궤양 등으로 하혈, 설사를 동반하고 고질화해 치유가 오래 걸리지만 근치의 희망은 있다. 날씨는 우레를 동반한 큰비이고 겨울이라면 엄동설한이다.



예괘의 육삼의 효사는 ‘우예 회지유회’(盱豫 悔遲有悔)다. 즉. ‘위를 쳐다보고 즐거움을 탐하다가 뉘우침이 늦어지니 후회가 있다’는 의미다. 위만 쳐다보고 놀다가 이제 그만 놀아야지 하지만 후회가 늦어져서 적절한 시기에 후회하지 못해 회한(悔恨)이 있고 흉하다. 육삼은 괘 중의 유일한 양효(陽爻)인 구사를 위에 받들고 있어서 구삼 자체는 즐거워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쾌락을 모방하려고 위만 바라보고 있어 아첨하다는 뜻이 강하다. 초육의 명예(鳴豫)와 같으나 흉조를 알고 빨리 뉘우치면 허물이 없는데 기회를 보고 결단을 못하면 후회가 늦어져서 흉하다. 육삼은 초육과 같이 음효(陰爻)가 양위(陽位)에 있어 힘은 약한데 뜻만 강해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한 것이다. 점해 육삼을 얻으면 초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분수와 실력 이상의 일을 추구해 실패하기 쉽다. 위만 쳐다보고 하늘만 보고 걷기 때문에 발밑에 신경쓰지 못하고 길가의 시궁창에 빠져 자신도 곤란하고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된다. 육삼은 구사의 윗사람과 음양친비(陰陽親比)해 구사의 권력을 함께 누리고 있으나 참다운 덕이 없는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자로 진퇴는 반복하고 마음과 뜻이 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의 질투를 조심하고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할 때이다. 사업·거래·지망 등 운기점에서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부족한데 남의 힘을 빌린 경우로 실패하기 쉬우니 축소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 좋다. 혼인도 이상이 너무 높아 성사되기 어렵고 잉태도 대감(大坎)의 상으로 출혈이 있거나 너무 차가워 순조롭지 않다. 기다리는 것이나 가출인은 돌아오기 힘들고 분실물도 찾기 힘들다. 병은 뱃속의 종양, 식독 등으로 출혈과 설사가 심해 치료가 쉽지 않으니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날씨는 큰비, 냉해를 동반하고 몹시 춥다.

[실점예]로 ‘모인의 운세 여하’를 점해 ‘예괘(豫卦) 삼효동’를 얻고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예괘는 구사의 일양이 때를 얻어 권력을 쥐고 있어 오음(五陰)은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이다. 문점자는 육삼으로 구사 권력자와 음양친비(陰陽親比)해 의기투합하기 때문에 함께 권력을 누리고 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해도 남의 질시를 받고 있으니 후환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점자는 구사의 권력자가 권력을 잃자 동료들과의 반감으로 사직하고 말았다. /동인주역명리학당(062-654-4272)